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트럼프 관세로 연준 파월 의장 ‘진퇴양난’
- Bloomberg: 연방 재무장관, “미 경제는 좋은 모습이다”

[미국 금융]

- WSJ: 미국 시장 “모두 팔아라” 모드로

[무역 전쟁]

- CNBC: 트럼프 상호 관세 오늘 부터 발효됐다
- Bloomberg: 중국도 미국산에 84% 관세 물린다
- Reuters: 중국, 트럼프 관세에 미 18개 기업 제재 조치
- WSJ: 트럼프 행정부, 미 항구 입항료 방안 개선한다

[주택]

- WSJ: 미 모기지,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

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급락에 항공·물류업계 나서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월마트, 관세 여파에도 저가 전략 유지
- Bloomberg: 델타항공, 무역전쟁 여파로 연간 실적 전망 철회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Trump's Tariffs Put Fed Chair Powell in a 'No-Win Situation'

트럼프 관세로 연준 파월 의장 ‘진퇴양난’

- 파월 의장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. 이코노미스트들과 기업,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여파로 고용과 소비가 둔화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, 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.
- 반면에 대규모 관세 조치로 미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. 사실상 현재로서는 뚜렷한 묘수가 없는 셈이다.
- 한편,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혀, 오는 6월 양일간의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시사했다.

Bloomberg: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ays Economy in ‘Good Shape’

연방 재무장관, “미 경제는 좋은 모습이다”

-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트럼프가 미 동맹국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낙관하며, 수출 주도 중심의 중국을 고립시킴으로써 중국의 수출 경제 모델에 대응하는데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중국 경제 모델은 “계속 생산하고 마구 쏟아낸다”고 평가하며,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증시에 대해서는 “불확실성이 일부 있지만 기업 대표들은 내게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한다”고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The Market Is in a New Mode: ‘Sell Everything American’

미국 시장 “모두 팔아라” 모드로

- 미국 주식, 채권, 달러 등이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은 “모두 팔아라”는 모드로 진입하고 있다.
-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스왑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어 시장의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.
- 물론 현재는 완전한 금융위기라고 볼 수 없지만 이같은 주식, 채권, 달러 하락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을 키우고 있다.

WSJ 기사

[무역 전쟁]

CNBC: Trump’s new reciprocal tariffs take effect on imports from around the world

트럼프 상호 관세 발효됐다

- 트럼프의 일련의 관세 조치들이 오늘 수요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효됐다.
-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10% 전면 관세와 이보다 관세율이 높은 상호관세가 시작되었는데, 상호관세는 86개국을 대상으로 11%에서 84%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다.

- 중국은 당초 20%에서 34% 그리고 50%가 추가되어 총 105% 관세를 물게 된다. 이어 아프리카의 레조토가 50%로. 두 번째로 관세 부과율이 높다. 그 뒤를 이어 캄보디아 49%, 라오스 48%, 그리고 베트남산에 46%의 관세가 적용된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China Raises Tariffs on US Goods to 84% as Trade Rift Worsens

중국도 미국산에 84% 관세 물린다

- 중국은 오늘 10일부터 모든 미국산에 84%의 관세를 매겨 트럼프의 중국산 104%에 대한 보복관세에 나섰다. 당초 34% 대미 관세율을 50% 추가로 올린 것이다.
- 양국의 무역전쟁이 커지고 있으며 각 나라 시장은 흔들리고 있다.
- 양국의 관세 수준은 양국 무역에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.

Bloomberg 기사

Reuters: China slaps restrictions on 18 US firms over Trump tariffs

중국, 트럼프 관세에 미 18개 기업 제재 조치

-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수요일 미 국방 관련 기업 12개 이상에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.
- 우선 12개 미 기업들에 이중 사용 (민간용과 군용) 물품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6개 기업을 '신뢰할 수 없는 기업' 리스트에 올렸다.
- 이들 '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'과 관련 중국은 중국과의 수출 수입 활동이 금지되고 중국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고 말했다.

Reuters 기사

WSJ: Trump Administration Revises Port-Fee Plan to Soften Blow to U.S. Exports

트럼프 행정부, 미 항구 입항료 방안 개선한다

-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중국산 선박에 적용 예정이던 미 항구 입항료 부과 방안을 수정할 계획이다.
- 입항료 규모는 선박 크기에 따라 결정해 작은 선박일수록 낮게 부과할 예정이다. 또한 농수산물 수출품을 선적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료를 줄여 주기로 했다.
- 이같은 변경 조치는 선사들과 무역 관련 단체들이 “높은 입항료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, 미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에 부담을 줄 수 있

다”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.

WSJ 기사

[주택]

WSJ: US Mortgage Rates Drop to Lowest Since October, Spurring Demand

미 모기지,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

- 4월 4일 기준 30년 만기 모기지가 6.61%로 하락하며,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 이는 미 국채 가격 상승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지목된다.
- 낮아진 금리에 주택 구매 신청 건수는 9% 이상 증가하며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, 재융자 신청 지수는 35% 급등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주택 구매 활동의 회복세가 소비 둔화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지만,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투자 위축 가능성으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둔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.

WSJ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Airlines and Shippers Pounce on Oil Plunge to Lock in Prices

유가 급락에 항공·물류업계 나서

- 브렌트유가 배럴당 \$60 아래로 떨어지자, 항공사와 해운사 등 연료비 비중이 큰 소비자들이 대거 옵션거래를 통해 미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고정하며 향후 연료비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.
- 이번 주 브렌트유 관련 옵션 계약 2,500만 배럴 이상이 거래되며 소비자 헤지 수요가 급증했다.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이번 급락을 계기로 기존 대비 낮은 헤지 비율을 목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Walmart Preps for Turbulence, Will Take Hit to Keep Prices Low

월마트, 관세 여파에도 저가 전략 유지

- 월마트는 관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, 가격 인상을 흡수하고 저가 정책을 유지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겠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

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감수하겠다는 방침이다.

-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, 월마트는 관세 영향을 반영하여 올해 순매출 성장률 전망을 3~4%로 변경했다. 또한 이번 분기 운영 이익 전망은 범위를 넓히며 자사의 조치가 수익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.
- 월마트는 미국 내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와 연결돼 있어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. 회사는 약 3분의 2의 제품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,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가격 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WSJ 기사

Bloomberg: Delta Pulls Outlook as Trump's Trade War Squeezes Air Travel

델타항공, 무역전쟁 여파로 연간 실적 전망 철회

- 델타항공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드스를 철회했다. CEO는 “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자세”라며, 향후 가시성이 확보되면 전망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.
- 델타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불필요한 자본 지출을 줄이고, 하반기 운항 확대 계획도 보류하는 등 방어적 운영 기조로 전환했다.
- 델타항공의 철회 결정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되었으며,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도감을 제공했다. 이에 따라 델타 주가는 오늘 오전(9:32) 5.1%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미국 국채 금리도 출렁...이틀째 상승 10년물 금리 2거래일간 약 0.3%p 급등 3년물 경매 부진...안전자산 지위 흔들리나 "외국인 투자자, 미 국채시장서 발빠" 관측도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하락했던 미국 국채 금리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.

관세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등 혼란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.

8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이날 전장 대비 0.11%포인트 오른 4.3%를 기록했다. 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